

요한일서 2장에 가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남겨놓은 12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말하는가에 있지않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있는것입니다.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전혀 행동을 다르게 할수있습니다. 내가 말하는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내가 죄 없다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내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내가 하나님과 사귄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내 속에 있지 아니하되 내가 저 안에 거한다 하고 말하면 나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행해야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내 형제를 미워하면 나는 지금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이제 요한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앎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2:12-13)

여기에서 요한은 영적성장을 말한다고 나는 믿습니다.

주님을 갖 영접한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은 그리스도안에있는 갓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우리가 만난 (영적으로) 어린아이들 에게 할말은 그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말해주는것입니다. 그거 참 좋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주님안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아는것은 단지 그들의 죄를 용서 받았다는것입니다. 그들은 기독교 교리에 익숙치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과 천사들의 본질에 대하여 아는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교인에 대해서도 잘모르고 중요한것들에 대하여 조금밖에 모르며 그들이 용서 받았다는것을 알뿐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아는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말하자면 유아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일 먼저 깨달아야할 사실은 죄를 용서받은것 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질때 주님은 청년의 상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다시 그리스도 께서 항상계셨다는 사실의 선언이 여기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요 1:1-2).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격하하여 천사의 부류에 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호와와 증인은 예수를 미가엘 천사라고 합니다. 미가엘은 천사장 이었고 피조물이었습니다. 미가서에서 미가는 그분의 출생지를 예언하면서 베들레헴에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찌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미 5:2) 라고 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영원” 으로 번역된 두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한단어는 문자 그대로 “사라지는 점에게로” 라는 뜻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에 생각할수있는 최대한의 과거로 돌아가보는것을 말합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여기에는 논쟁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과학자들은 우주가 1,200 억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전으로 돌아가봅시다. 1,200억 년전 우주가 존재하기 시작할때로 돌아가봅시다. 그 다음에 10배 전인 12,000억 년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12,000억년 전을 상상이나 할수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보다 더 전의 과거로 돌아가봅시다. 1조년 전, 또 10조년 전, 또는 100조년전으로 말입니다. 그 사라지 는 점 (소점) 까지

가려면 얼마나 더 멀리 돌아가야 할까요? 당신의 마음은 그곳에 다다르 기전에 몽롱해 질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소점 즉 사라지는점에 도달할것입니다. 그점을 넘어서면 마음에 이해도 상상도 할수없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어의 단어인 ‘영원’ 이라고 번역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히브리어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단어는 문자 그대로 “소점 (사라지는 점) 을 지나서” 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돌아볼수없는 소점에 이른후에는 그것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 단어를 특별히 미가 선지자가 사용했습니다. 그 소점을 지나서 계시던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분 이십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임명하신분 이었습니다.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했던 태초입니다. 요한은 그의 서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주 예스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사 우리가운데 거하시니라.” 아버지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그다음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기서 원수와 함께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며 그들은 승리를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전선의 선두에 세우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뒤에두고 그들로하여금 배우고 발육하게하고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시련을 통해 성숙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해지기 시작할때 번번히 우리의 신앙이 튼튼해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증가하도록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권고하시는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약 1:2). 그것이 우리의 성장이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발전하게 하는것 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과와의 관계와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기위한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가능한 문을 다 닫으실때 감격을 느끼는 이유는 지금 주님께서 어떤일을 하고 계시기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없지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인가를 행하시려 하시기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을 닫으실때엔 일반적으로 당신은 좋은 형편에 있습니다. 돌아설만한 어떤곳도 없으므로 당신이 포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말하기를 “아,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그건 할수없어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하실수있는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가지신것이죠.

성경에는 없지만 “사람의 궁극에 도달하는것은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것” 이라는 말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나는 그말을 너무 많이 들었으므로 오랫동안 그것이 성경 구절인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진실이 거기에 담겨있습니다. 빈번히 우리가 자원이나 재능이나 방법이 다할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많은경우 하나님은 우리가 막바지에 이르기 전에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너무 서둘러서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들의 좋은방안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기쉽습니다. 그리고 난후에 우리는 성공 비결에 관한 책을 쓰려고 할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젠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때문이죠. 우리는 그성공 비결을 팔아먹고 또 적절한 조화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가르치고 모든것을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좌절과 절망의 자리까지 다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후 주님이 역사하실때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날 무엇을 하셨는지 도저히 믿어지지않아” 라고 말할수 있을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리고 난후에 되돌아가서 같은 경과를 다시 되풀이하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같은 말을 합니다. 다만 이번엔 선언 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그런후에

아버지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2:14b).

그들에게 똑같은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청년들로 바꾸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2:14c).*

제일 먼저 요한은 “너희가 흉악한자를 이기었음이라” 고 말합니다. 이제 요한은 강력의 비밀이 무엇이며 그들이 흉악한자를 어떻게 이겼는지를 말해줍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그것이 항상 적을 대항하는 강력이됩니다. 우리중에 영적 경험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리 앞섰다 하더라도 원수의 공격에서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에 거하는 동안에는 아무도 사단의 공격에서 면제될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받는것 이상으로 자랄수는없습니다. 실제로 많은경우에 우리가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앞에 놓여있는 시험은 더 큽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의 수준을 넘어서 자라지않습니다. 즉 우리의 원수인 사단과의 씨름하는 수준을 능가해서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이기는 강함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마음속에 거하는것 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 119:11).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험과 하나님께 범죄하지않도록 막아주는 능력입니다.

사단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을때 그는 그시험을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는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그의 능력의 비결은 그의 마음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원수에 의해 걸려 넘어지는 수가많은나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걸뺨되어 있기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바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않고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게 되는것을 기뻐합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원수의 공격에 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마음에 거하셔서 악한자를 능히 이길수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져야 하겠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명령 합니다.

이 세상이나 (즉, 당신주변의 물질세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2:15).

이것은 참으로 강한 표현인고로 주의하는게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 6:24)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주인을 섬길수도 없지만 또 섬겨서도 안됩니다. 맘몬 (제물의 신) 은 세상의 물질적인것들과 금융 제도를 말합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수없습니다.

이제 요한은 세상이 무엇인가를 정의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좃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좃아 온 것이라(2:16).*

사단이 시험하러올때 시험은 이 세부류중의 어느 하나에 속한다는것을 확인 하십 시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중 하나입니다. 그것들이 바로 사단 이 공격하는 영역들입니다. 에덴동산으로 돌아가서 사단이 동산에 있던 하와를 시험하러 왔을때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단은 하와에게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육신의 정욕 대로 “먹음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대로 “보암직도 하고” 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수있어” 그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하와를 넘어 뜨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단이 예수께 나아 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고 한것은 육신의 정욕을 노린것입니다. 천하만국의 약속은 이생의 자랑을 말하며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한것은 놀라운일을 행하여 네자신에게 관심을 끌게하라는것은 이생의 자랑을 말합니다. 이러한것들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때 노리는 영역들이며 이것들은 세상에 속한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단이 이러한 영역을 공격하는것이 역사적으로 어떤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세상의 악이 성하므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 24:12,37). 노아의 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한것처럼 우리들은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킬 기회가 수없이 많이 있는 시대에 살고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위하여 사단은 잡지나 빌-보드 영화 등등의 많은 자료들을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게 했으며 그것을 막을길은 전혀 없는것같습니다. 이러한방법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함께 마음에 생각하기 시작하도록 만듭니다. 육체적만족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을 만드는것은 하나님이 설정하신 범위 밖의 일입니다. 만일 누가 세상, 즉 세상의 제도, 또는 세상에 일어나는일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속에 있지않기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유를 받아서 남용하는 큰모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연합하려하면서 세상과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벨리알과 연합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것은 있을수 없는일입니다. 빛을 어둠에 섞을수없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주 강력한 말씀입니다. 당신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보십시오. 내마음에 세상을 사랑하는것이 있는가? 내가 세상일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가? 내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있는가? 내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겐 없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 (2:16).

이제 요한은 합당한 이유를 말해줍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2:17a).

만일 당신의 삶이 세상일에 얽매여 있다면, 다시말해서 당신의 삶이 거기에 있다면 세상을 향한 욕심도 정욕도 사랑하는 마음도 지나갈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결국 당신은 없어질것들에 투자하고 있는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2:17b).

그것은 참으로 합리적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빈번히 영원에 대한 우리의 시야를 잃는것입니다. 우리가 이세상에 사는동안에 세상일에 너무 어울려 우리의 시야도 희미해지고 영원에 대한 감각과 의식을 잃게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에 대한 의식을 잃을때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출입을 할수있게됩니다.

시편 73장에서 아삽은 그가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 사단이 그의 마음에 드나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 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 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사단은 실제로 그의 마음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히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 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 하였으니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 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의 관점은 바르게 되었고 영원한 것을 보는 시야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이유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질세계에 살 때 세상풍조에 휩쓸리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영원을 보는 시야를 잃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는 것은 아주 중요하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는 것임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것들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기 위함이며 우리가 참된 관점을 가져서 없어질 물질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을 교정하는 것이 우리가 성소에서 체험하는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것에 대한 감각과 의식을 다시금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루실 때 우리의 문제들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루실 때 그는 항상 영원한 관점에서 보십니다. 내가 일시적인 관점으로 볼 때 많은 경우에 나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무얼 하고 계시죠? 하나님, 어떻게 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으세요? 저를 사랑하신다면 왜 제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냐하면 나는 일시적인 것들과 물질의 이점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과 이점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서서 긴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렀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 인줄 아노라 (2:18).

예수께서 “마지막 때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구세주 라고 주장 합니다. 그러한 일이 요한이 살던 당시에 도 일어났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그들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징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세대마다 우리가 마지막 세대이다 라고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항상 그것을 의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곧 오실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교회의 정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중의 하나로서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관점을 바르게 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여보시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내가 믿기엔 20년 내에 주님이 오실 것 같습니다. 주님이 20년 내로 오시지 않으면 나는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오실 것 입니다.

제 사견으로는 우리 모두와 젊은이들을 위해 주님이 아주 빨리 오실 것 같습니다. 내가 믿기에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교회에 좀 더 관심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25년 전보다 오늘날 더욱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25년 동안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성경의 예언들이 훨씬 더 현실화 되고 있으며 특별히 예언의 성취에서 그러합니다. 우리는 점점 종말로 닥아가고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마지막때에 살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가 마지막시대에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모두가 모든 프로그램이 어느 순간에라도 중단될수있다는것을 깨닫고 인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당신이 물질에 너무 애착을 느끼지 않게하기위함이며 가볍게 살도록 하기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인들 에게 그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때가 이르나니 결혼한자는 결혼 하지않은자 같이 지내야하리라.” 다시말하자면, 당신의 첫번째 우선순위는 당신의 아내를 사랑하는것 보다 하나님을 섬기는것 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세상과의 접촉은 가능한대로 가볍게 해야할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것입니다. 너무 깊이 뿌리박지 마십시오. 세상의 제도에 너무 억매이지말고 순간적인 통지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때 그냥 던질수있도록 하십시오.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곧 나타날것을 기다리 지만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복수로서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었던것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에 관해 말합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2:19).

건강한 몸은 체내에 있는 독소를 제거할수있는 몸입니다. 그리고 몸이 너무연약하면 더 이상 독소를 제거할 능력이 없게되며 곧 죽게됩니다. 그래서 독소를 스스로 제거할수있는 몸이 건강체입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20).

안다는 뜻의 두 헬라어단어가 있다는것을 언급했습니다. 첫째단어가 “기노스코 (ginosko)” 이며 경험으로 아는것을 말합니다. 둘째는 “오에티스 (oetis)” 는 직감으로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무엇이 이런 특수한 헬라어 의 단어이리라고 믿으십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모든것을 경험으로 아십니까? 모든것을 경험했습니까? 다행히도 나는 경험하지 않았습니 다. 나는 많은것을 경험하지 못했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나는 모든것을 경험으로 알지않습 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성령의 기름부음으로 압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름부음이 있고 모든것을 압니다. 우리에게 오는 성령의 직관적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흥미롭고도 어려운 것은 우리가 성령의 직관적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지않은 사람을 다루는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분명한데 그들은 그것을 모른다는 사실에 완전히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이 한가지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것에 대한 지식을 주시고 이해력도 주셔서 그것을 확실히 보고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설명할때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야, 그건 그렇게 될수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좌절감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할말도 주십니다. 많은경우에 알긴 아는데 설명할수없는 경우가 있죠.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걸 어떻게 알아 요?” 그러면 당신은 대답하기를 “응, 나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난 알아요.” 그들은 말합니다

“당신이 그걸 알리었어요.” 그러나 당신은 말합니다 “난 알아요.” 당신에게 성령의 기름부음이 있고 성령이 당신에게 사람들이나 환경에 관한 직관적 지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사건에서는 사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간것은.” 이 직감은 그들이 참으로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음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앎을 인함ियो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2:21).

다시 이 두 단어들은 헬라어로 “오에티스 (oetis)” 이며 직관적 지식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압니다. 진리를 어떻게 압니까? 성령께서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압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압니다. 성령이 마음속에 역사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설명하기를 시도해보십시오. 여러가지 의문과 잘못 전달하는 것과 모든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압니다. 아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 벌어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당신이 알게 되었으니 당신의 심령에 역사하신 성령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이 알수 없었으니깐요. 당신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어둠에서 방황할테죠.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앎을 인함ियो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 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2:22a)

내가 말했던 것 처럼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당신은 아십니다.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성령께서 이 진리를 당신의 마음에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거짓말로 믿습니다. 예수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부인하는자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2:22b).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왜 예수가 필요한지 난 모르겠어. 나는 예수가 선한 사람이고 예언자인건 믿지만 ...” 아니요, 예수가 선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너무나 일치하지 않는게 너무 많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렇다면 거짓말쟁이를 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사기꾼이며 속이는 자인데 어떻게 그가 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든가 아니면 속이는 자요 거짓말쟁이이며 또한 사기꾼입니다. 따라서 그는 선한 사람이 될 수 없죠. 그는 가장 나쁜 허풍선이었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2:23a).

“하나님은 믿지만 난 예수는 안 믿어.” 아니요, 당신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6).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어떠한 신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이방신들이 있다” 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최상의 존재이신 그분을”. 그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 관하여 말할 때 그는 천지의 창조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이 아닙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없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구약성경의 하나님도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올때 동물을 희생으로 드려서 그들의 죄를 제거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오, 나는 나의 선행으로 하나님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행과 정직을 보아서 나를 받아주실것입니다.” 당신의 신은 당신을 받아줄지모르나 그 신은 당신의 성경에 계시된 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선행은 그의 눈앞에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우리의 행위를 믿는것이 아니라 그가 이루신 일을 믿는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버지와 아들사이에 연결이있고 아들이없는 아버지나 아버지가 없는 아들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를 부인하면 다른 한쪽도 부인하는것이고 한분을 받아 들이는것은 다른분도 받아드리는것입니다. 두분이 다 한꾸러미로 함께 가는것이지 분리 할수 없습니다. 흠정역에서는 던부친것이 있습니다.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2:23b).

그러나 그것은 단지 본문에 던부쳐진것입니다. 이탈릭체로 쓰여져 있는것에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본문에 던부쳐진것임을 나타내기위한것이며 더 추가하는것없이 전체적인 생각을 나타내기 위한것 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자에게는 아버지가없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2:24).*

그들의 신앙을 시작할 때에 그들은 예수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배웠습니다. 그는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기위해 오셨습니다. 그사실을 굳건히 붙잡고 그것이 마음에 거하도록 하십시오. 그이유는 당신이 계속해서 아들과 아버지안에 거하게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2:25).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그리고 예수께서 3장 36절에서 말씀 하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 11:25-26).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하나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것이며 그것이 현재 우리가 가진 소망입니다. 나는 영원히 예수그리스도와 함께 시간을 보낼계획입니다. 주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나는 그곳에 있을것입니다.

*너희를 미혹케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2:26-27).*

이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고 선언했고 예수님도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 14:26)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진실로 배우려고 한다면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재미있는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가르치더라도 어떤 사람은 보고 듣고 그것이 선명히 이해가 되어서 “와, 그거참 좋군” 하는가 하면 어떤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그사람이 무슨 얘기를하는거지? 이거 언제 끝나는거야? 네가 알다시피 내가 밥(Bob) 에게 가야하는거 알잖아?” 그다음에 무슨일이 일어납니까? 어떤것은 성령께서 당신에게 가르치십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배울수없습니다. 비록 당신이 진리를 듣거나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찌라도 성령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깨닫거나 이해할수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고전 2:14-15).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가르치는 선생이 필요없다고 말하는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두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목사와 교사가 필요하지않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목사와 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증거하시고 진리를 심어주지않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가르침은 성령으로 부터 오며 당신의 마음을 찌르고 마음속에 거하게됩니다.

재미있는 일은 내가 내 자신의 테잎에서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빈번히 나 자신의 테잎을 듣습니다. 나는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걸 말했어? 내 목소리인걸 보면 분명히 내가한거지. 나는 그말한걸 기억하지 못하는데. 참 좋군, 놀랍군.”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사로인해 그렇게 될수있다는것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것을 가르칠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에게 완전히 열려야 합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영적인것들을 배울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펼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하는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길로 우리 마음속에 가르쳐 주옵소서.”

아이들아,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뇨? 저 안에 거하라. 그것이 멧세지이니 -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2:28).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그가 행하신것 같이 행해야 할것입니다. 갑자기 주님이 눈깜짝할 사이에 나를 집에 오라고 부르신다면 그순간에 내가 무얼하고 있을까 생각 해봅니다. 주님이 교회를 휴거시키십니다. 나는 무얼하고 있을까요? 말 하겠습니다. 내가 하지않아야할것을 말하겠습니다. 아주 정직하게 말해서 풋-볼 경기가나오는 텔레비존을 보지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램 (Ram) 팀과 뉴욕의 자이언트 (Giant) 팀이 경기할때 더욱 그러합니다. 내 생각에 그것은 시간낭비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시간 낭비 하는것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싶지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팀이든 경기하는것을 보고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때 설교하고 있는것이 오히려 더 나을것 같습니다. 그러면 떠들하게 “좋습니다, 주님 내가 어디있는지 보십시오” 라고 말할수 있을테니깐요.

주님이 어느때나 오실수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때 부끄럽게 되기를 원치 않으시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시간을 아끼고 기회를 가능한한 이용하며 하나님이 주신시간을 사용하라고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오실때 확신을 가지고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기위함입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2:29a)

그가 의로우신줄을 아십니까? 그분이 의로우신줄을 어떻게 아시죠? 오에티스 (oetis - 직관적 지식) 로 인가요 아니면 기노스코 (ginosko - 경험적 지식) 로 인가요? 우리는 그분이 의로우심을 성령을 통하여 직관으로 압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2:29b).

그것을 어떻게 알수있습니까? 내가 경험으로 그들을 볼수있기때문에 의를 행하는자마다 그에게서 난자들임을 알수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 지식과 경험적 지식이 이 한구절에 있습니다.

제 3 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3:1a).

나는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셔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셨는지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입양하셔서 그의 아들 이라 부르실 그사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하셨는지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라 (3:1b-2).

이젠 우리의 삶에 굉장한 변천과 변화 가 일어날 휴거는 기대하지 말아야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아세요? 내가 바라는것은 내가 모든것을 깨닫기 전에 단 한시간 동안 만이라도 천국에 가 있는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도 하고 친교도 나누며 주님과 함께 살다가 돌연히 내가 말하기를 “야, 공기가 참 맑은네, 내가 어디에 있지?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당신은 한시간이 지난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급진적 변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급진적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서 역사하시며 매일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 시키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속에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며 우리가 영광중에 주님의 목전에 왔을때에는 어떠한 급진적인 변화도 없게됩니다. 우리가 그곳에 달했을때 우리의 마음엔 무엇으로 꽂차있을까요? 그와 함께 교제하며 그를 경배하며 그와함께 나눌 그를향한 사랑으로 꽂차있을것 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우리의 마음엔 무엇으로 차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저 그를 사랑하고 섬기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차 있어야 할것입니다. 180도 다른 급진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에 거할때 우리의 있는힘을 다하여 이길을 마치고 난후 휴거되면 다른길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변천은 거기서 계속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성경이 재미있는것은 천국이 무엇과 같을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설명할 말이 없기때문입니다. 그래서사도 바울은 그의 경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십 사년 전에 그가 세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고후 12:1-4). 천국을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는것은 범죄하는것입니다. 이것들을 표현할 적절한 사람의 언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제한되어있고 충만한 영광과 아름다움을 실제로 표현할수 없기때문에 묘사하지않고 내버려둔것입니다.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 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고전 2:9-10).

내가 하늘나라를 맛본적이 있습니다. 내마음에 하나님의 신이 특별한 역사를 하셔서 나를 황홀한 상태에 데려가셨습니다. 나는 말할수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깊은 영광의 평화를 느꼈지만 표현할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하늘나라의 정경의 몇가지를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것을 말로 묘사할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장님인 한자녀가 있다면 어제저녁에 본 해지는 광경을 그에게 묘사하기위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렌지도 본적이 없고 빨강이나 구름과 아름다움, 사라져 가는 파랗고 빨간 불꽃 이나 이 모든것을 본적이 없는 아이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아이에게 석양의 아름다움을 적절한말로 묘사하겠습니까? 그것을 묘사할수 없을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정경을 묘사할수 없습니다. 성경은 설명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여보게, 하늘 나라는 우리의 믿는것이나 상상을 초월해서 훨씬 더 영광스럽다네” 라고 말할뿐입니다.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 (고전 15:35). 그리고 그는 우리몸이 어떻게 될것인가에 대하여 많은말을 하려고 하지않습니다. 단지 그것은 우리가 현재 가진몸보다 크게 탁월한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우리는 썩을것으로 심고 썩지아니할것으로 살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된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것이며 육의 몸 이 있을즉 또 신령한 몸이 있습니다. (고전 15:42-44 참조). “우리가 흠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고전 15:49).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십니다. 죽은자의 부활도 마찬가지 입니다.

새몸 - 그것은 땅에 심은 몸이 아닙니다. 연약한 무릎이나 시력이 나쁜눈이나 대머리나 주름살을 가지지 않으렵니다. 지금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아직나타나지 않지만 그것은 영광 스러운 새몸일것입니다. 조금도 염려하지않습니다. 내가 아는것은 내가 주님과 같이 된다는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보는것 같이 나도 주님처럼 될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내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며 나도 그와 같이 될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3:3).

내겐 이것이 교회를 가장 깨끗하게하는 소망 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순간에라도 오실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모습 처럼 변할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라면 참여할뻔했던 일들을 나로 하여금 하지못하게 막아줍니다. 여러가지 시간낭비할 일들을 하지않게되는것은 주님이 곧 오실것과 나의 시간을 그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 원하며 나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려 하기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3:4a).

여기에서 “짓는다 (commits)” 는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 또는 “죄중에 산다” 로 번역 되어야합니다.

*죄를 짓는 자(죄 가운데 살거나 죄를 반복하는자) 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없이 하려고 나타내신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3:4-5).*

1장에서 복수인 죄는 열매 혹은 결과라고 했으며 단수인 죄는 우리속에 있는 죄의 본성 이라고 요한일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 에 관하여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는 말은 그에게 죄의 본성이 없다는뜻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부인하면 내 스스로 속이는것이며 내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만일 내가 죄 없다하면 내게 죄성이 없다하는것이므로 나 스스로 속이고 있을뿐입니다. 만일 내 죄성이 열매를 맺은적이없다, 즉 범죄한적이없다 고 말하면 그것은 더 나쁜것으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겐 죄성이 없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나님 에게서 났습니다. 베드로가 말한대로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점은 타고난 결함 을 말하며 그에게는 타고난 결함이 없었습니다. 흠은 타고난후에 생긴 결함이며 그에게겐 그것도 없었습니다. 내겐 두가지 곧 점과 흠이 다 있습니다. 내겐 타고난 죄 즉 죄성이 있으며 그것이 너무나 많은 열매를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내 죄를 자백할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내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나를 깨끗케 하십니다. 누구든지 반복해서 죄를짓는것은 법을 어기는것이며 죄는 법을 어기는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습니다. 죄가없으신 그가 내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 죄를 없이하려고 오신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3:6).

아주 능력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점검하도록 만듭니다. 내가 죄를 범하는 생활을 한다면 나는 실제로 그분을 모릅니다. 나는 실제로 그분을 본적이 없습니다. 내가 진실로 그분을 안다면 내가 범죄와 멀어질것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3:7a).

그리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3:7b).

그리스도는 순결에서 우리의 본이 되십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는 의에 관하여도 우리의 본이 되십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의로우신것 같이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3:8).

다시 말하지만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만일 죄를 반복하거나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파에 속하며 사단을 따르는것입니다.

하나님께서로써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3:9a).

“그의 (His)” 라는 말이 성경에 있으며 그것이 예수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영어성경 에는 대문자로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यो. 저도 범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낳음이라 (3:9b).

아시는바와 같이 나는 하나님께서 낳았습니다. 나는 중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보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 두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난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성령으로 난것이 중생입니다.

나는 죄성을 가지고 육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출생했습니다. 죄성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는 죄인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그리스도께서 하신일을 통하여 중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본성을 가졌습니다. 내가 적절하지않은, 비천하며, 더럽고 추한것을 할때 “당신이 아다시피 그건 옛근성이야” 라고 말할수는 없습니다. 이제 새 본성을 가졌기때문에 나는 중생한사람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일을 하는것은 당연한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치 않은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말이 아니라 내게 부자연스러운것으로 되었다 는말 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성인 그의 씨가 내안에 거하기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수없습니다. 죄를짓는것은 나의 새로운 본성과 정반대이며 나의 새본성을 반대하는것입니다. 내가 죄에 빠질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새본성에 너무나 반대가 되므로 나는 견딜수없고 불안해서 즉시 그것에서 빠져나와 “주님, 용서해주세요. 제가 바보였어요. 저는 장님이었고 어리석었습니다. 오 주님, 용서해주세요” 라고 말할것입니다. 내가 죄중에 살면 불안해서 못견딜것입니다. 나의 새본성으로 인해 죄를 지으면 비참해지겠죠. 나는 그리스도안에 있는 새 본성을 가졌기때문에 죄를짓는것은 격에 어울리지않습니다. 그사람의 인격은 그본성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본성이 필요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예수께서 “너는 거듭나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돼지는 본질적으로 돼지입니다. 그리고 돼지에게 특정한 자연적 성향이 있습니다. 그의 본질이 요구하는 것과 다른 환경에 놓으면 대단히 불안해 할것입니다. 돼지는 본성으로 진흙탕에 들어가기좋아하며 꿀꿀거리고 흙탕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악취를 내고 본래 냄새가나는 동물로 그것을 좋아합니다. 이제 돼지를 흙탕에서 꺼집어 내어 향수가 나는 비누로 깨끗이 씻은후 향수를 발라 방안에 데리고 가보십시오. 그것이 돼지에겐 자연스러운것이 아닙니다. 그동물은 당신의 응접실에서 대단히 불편하게 느낄것입니다. 아마 이리저리 다니면서 빠져나갈 길을 찾겠죠. 냄새나는 진흙탕으로 돌아가고싶을것입니다. 내가 돼지라면 흙탕으로 돌아가서 “나는 이게좋아. 이게 내본질이니까” 라고 할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은 사람들에게 맞지않는것입니다. 개혁 이상의 것이 필요하며 본질의 변화가 있어야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것입니다. 그것은 “이리 오너라, 너의 행실을 깨끗하게 해줄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개혁으로는 되지않습니다. 복음은 “변화를 받으라” 고 하며 본질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그곳에서는 의를 행함이 당연한 것으로 됩니다. 그 이유는 그의 씨인 성령이 내속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본성이 내속에 심어진것입니다.

그리고 중생하지못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예수그리스도에게 맡겨 드리기를 결정을 할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크리스찬들을 보고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수없어”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가 돼지이기 때문에 흙탕에서 행복하며 깨끗한 삶 즉 순수한 삶을 산다는것은 상상도 할수없거니와 그의 본성에 전적으로 반대 되기때문입니다. 그는 새환경에서 아주 불편스럽게 여길것입니다. 또 사단은 빈번히 그것을 믿음의 결정을 내리려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나는 저런 크리스찬들 처럼 살수없어. 그들이 사는것처럼 살아보고싶긴 하지만 그건 내겐 맞질않아. 나는 그렇게 못해.”

물론, 그렇게 할수도 없죠. 우리의 본성이 바뀌지않는다면 그렇게 할수없습니다. 그러나 우린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의 씨가 내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본성을 가졌고 이 새로운 본성으로 죄를 지을수 없습니다. 만일 죄를 짓는일이 불편스럽게 느껴지지않는다면 새 본성을 가지고 있지않기때문입니다. “오, 그런데 나는 빌리그래함 전도집회에서 손을 들고 그앞에 나갔는데.” 상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본성의 변화가없으면 그는 진실로 중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나타나나니 (3:10a).

이렇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수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3:10b).

만일 당신이 의로운 생활을 하지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습디다. 당신이 무슨 고백을 하였는가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3:10c).

우리가 서로 사랑할찌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것이 복음의 중심입니다. 한울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것을 기억하실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 22:37-40) 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본성을 가지지 않은것입니다. 그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자는 하나님께서 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본성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찌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 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3:11-13).*

당신의 행위는 의롭고 그들의 행위가 악하므로 그들이 당신을 미워합니다. 당신이 그들에 죄의식을 갖도록 만듭니다. 그들은 죄책감 느끼는것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미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항상 바른짓만 하는구나. 아이구, 네가 다른 사람들 보다 낫다고 생각하니? 그렇지?” 그들은 당신을 미워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에서 2,000 불이나 들어있는 값비싼 가방을 발견하고 그것을 경찰에 넘겨 주는것을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 에게 여러가지의 미움으로 찬 편지와 생명을 위협하는 편지도 보내고 온갖짓을 다하는것을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들에게 전화를 걸어 괴롭히고 미련한 바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옳은일을 하고도 여러가지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의인을 미워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미워한다고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3:14).*

내가 사망에서 옮겨졌는지를 어떻게 알수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함으로 알수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 “ (요 13:35). 세상에게 보여줄 가장큰 증거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들간의 사랑입니다. 세상은 크리스찬들이 서로 사랑할때 그들이 참된 크리스찬임을 알게됩니다. 그것이

세상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될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도 증거가 됩니다. 당신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음을 어떻게 아시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몸과 그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을 주셨기때문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3:15).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줄을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 하는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어떻게 압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의 목숨을 버리셨기때문에 그가 나를 사랑하시는줄을 압니다. 다시말하자면, 앞에서도 말한것처럼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보여주시려 할때엔 항상 십자가를 가리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증명하기위하여 다른 어떤방법도 사용하지않습니다. 그는 항상 좋고 형통하고 행복하며 쾌활한 당신의생활 환경으로 당신을 향한 그의 사랑을 증명하려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이 들기 시작할때 눈을 돌려 그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3:16).

예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 15:12-14). 그리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 그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도 남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몸을 위하여 서로 사랑해야합니다. 예수님께서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보냐? (3:17).

이제 실제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는 축복을 받았고 번영하며 세상의 물질을 많이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그리스도안에 있는 형제가 아주 궁핍한것을 보고 그를 돕기위해 손을 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속에 거한다고 어찌 말할수 있겠습니까? “오, 예,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가여운 형제, 그를 생각하면 마음이 안됐어요. 나는 그를 무척 사랑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번 크리스마스에 터-키 가 없다던데, 수치스러운 일이네요. 크리스마스에 빅맥 (맥도날드 의 햄버그) 을 먹어야 하니, 형편이 말이 아니군요. 오, 그렇지만 난 그를 사랑해요. 오,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천만에, 당신은 그를 사랑하지 않아요. 당신이 그들을 실제로 사랑할수없기때문에 그들이 궁핍할때 당신의 마음문을 닫고 그들의 필요한것에 대하여 마음이 굳어져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속에 거할수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안에 거한다고 말할수 있습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3:18).

말로하는건 쉽죠, 그렇지 않아요? “나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겠어요.” 사랑한다고 말하긴 쉽습니다. “오,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섹스피어가 말한것이 무엇이였죠? “당신은 이의가 너무 많아.” 사람들이 나를 볼때마다 “오,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해”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나는 항상 의심해봅니다. 내주변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중에 그렇게 말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후에 그가할수있는 최상의것은 내등에 칼을 들이대는것이었습니다. 오 그는 날 무척 사랑했습니다. 예, 예, 예,

말로만 사랑했지 사랑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행함으로 사랑합시다. 우리의 사랑을 말로만 하지말고 행동으로 보입시다. 표현하는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보여주는것이 더 좋습니다. 남을 위해 손을 펴서 도우고 전화도 하며 격려하고 필요에 따라 제정적으로 도우며손을 펴서 서로 도우는 것입니다. 우리 행동으로 사랑합시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3:19a).

내가 진리에 속한줄을 어떻게 알수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사랑하고 행동으로 사랑하면 그것으로 내가 진리에 속한것을 알수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3:19b-20).*

때때로는 우리마음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가끔 우리를 정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마음에 사단의 정죄로 고통을 당합니다. 나는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수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들을 혹평하여 말합니다 “왜 내가 그말을 했을까? 오, 왜 내가 그말을 했어?” 그리고 그들은 친구들과 함께 있었을때 한 말로 인해 잠을 자지못합니다. 그들은 두려워 합니다 “내가 하지않아야할 말을 했어. 이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거야.” 또 그런일로 고통을 당하는 성격을 가진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자신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거든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벌써 나를 의롭게 하셨으므로 책망하시지 않을것이지만 나는 그것들을 가지고 나자신을 책망한다 는 것을 확신합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롬 8:34).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롬 8:1). 우리마음이 우리를 책망하면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 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3:21-23).*

첫번째 부분인 “무엇이든지 구하는바를 그에게 받나니”를 약속으로 받아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절이 아직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에 몇가지 놀라운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도에 대한 광범위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 21:22).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취하여 믿음에 관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것은 무엇이든지 가질수있습니다. 벤-즈도 가질수 있습니다. 리-도 섬과 같은 부잣동네 에 살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지 오직 필요한건 믿음입니다. 원하는것이 있습니까? 믿으십시오 그러면 갖게될것 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무리들에게?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 하십니다. 무엇이 제자가 되게 합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 16:24). 그위에 이것으로 먼저 인을 쳐야할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것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그뜻은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는것이지 벤-즈와 같은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위한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때 확신을 가집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들의 유익이나 재산의 증식을 향한것이 아니며 우리의 기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것이며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형통하게되고 복받게 하기위한것이기때문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3:23a).

이제 요한은 계명에 대하여 많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명과 계명을 지키는것에 관하여 좀더 말하려고 합니다. 계명이 무엇입니까?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3:23b).

그게 전부 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라는것과 하지말라는 품목의 십계명을 주지 않았습디다. 그가 말하는 전부가 예수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것입니다. 예수 께서 아주 간단하게 줄여주신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을것입니다. 그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것이기때문에 기억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기 어렵고 무거운 짐이나 긴 목록을 주시지않았습디다. 단순히 “예수믿고 서로 사랑하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3:24).

그가 우리안에 또는 내안에 거하시는줄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3:24).

하나님은 내 삶을 성령으로 채우셨습니다. 나는 성령이 내안에 거하시는것을 압니다. 그가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것을 가르치시고 그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것이 생각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그리스도를 믿으라는것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케 되며 그 사랑이 증가되고 자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속한것과 세상에 속하지 않은것에 대하여 바른 관점을 갖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붙이는것들이 가볍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도 그정욕도 다 지나갈것이기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자는 영원히 거하게될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것에 흥미를 느끼고 영원한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 지도록 도와주옵소서.